

종합 신년사로 본 방송계 화두는?

KBS와 MBC가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공영방송’, ‘신뢰 회복’, ‘경영 위기’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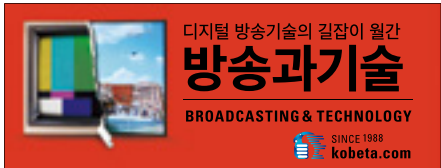
3면

신년특집 2018년 방송계 전망과 과제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요 정책들이 본격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 방송계 이슈를 간략히 짚어보고, 각각의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살펴보고자 한다. 4면

오피니언 [칼럼] 가상 화폐

어느 날 갑자기 원화를 폐지하고 달러로만 거래하라고 한다면 엄청 혼란스러울 것이니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는가? 주조나 부조에서 ‘TAKE’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도 가상 화폐 시스템은 변화하고 있다. 7면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260호
2018년 1월 10일(수)

고대영 KBS 사장 1월 중 해임 가능? 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김상근 목사 추천 KBS 여권 추천 이사, 고대영 해임안 제출



고대영 사장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KBS 국정감사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방송법이 개정되면 물러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KBS 새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고 사장의 방송법 개정 전제 조건을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로 바라보고 있다. ©뉴스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를 추천했고, KBS 여권 추천 이사들이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고대영 사장이 김장겸 전 MBC 사장과 똑같은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강 이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체 방통위원 5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했고, 나머지 4명의 상임위원이 합의 끝에 강 이사 해임을 제청하기로 했다.

이후 방통위는 1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강 전 이사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이사직에 김상근 목사를 추천기로 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 목사의 임기는 강 전 이사의 잔여 임기인 오는 8월 31일까지다.

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목사 추천안을 최종 재가함에 따라 KBS 이사회는 여야 6:5 구조로 역전됐다. 현 여권 추천 이사들의 뜻만 모아도 재적인원 과반의 의사를 모을 수 있기에 MBC와 마찬가지로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과 고대영 사장 해임결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김시중, 장주영, 전영일, 권태선 등 여권 추천

이사 4명은 1월 8일 KBS 이사회 사무국에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KBS 이사회는 1월 10일 오후 4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야권 추천 이사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방통위 전체회의의 후 개인 성명을 통해 “KBS 이사진 교체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도 해임 사유로는 불충분하다”며 방통위의 안건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당도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목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무현재단 고문을 맡고 있어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해임한 KBS 이사 자리에 친정권 이사를 추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고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사장과 사장을 내세워 방송 장악이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고 사장의 해임까지 남은 절차는 △이사장 교체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 및 의결 등으로, KBS 새노조는 “2014년 김환영 사장이 해임된 전례와 비교 검토하면, 고 사장 해임은 1월 중 무리 없이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방통위의 파업 중단 발언에 “방통위가 오늘 KBS 보궐 이사

김상근 목사를 추천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 5명의 방통위원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월권이자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BS 보궐 이사로 김상근 목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하면서 “KBS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 노조의 조속한 업무 복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는 “파업 120일이 넘도록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나”고 되물은 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공영방송을 정권의 시녀처럼 만드는 앞장서 온 곳도, 감사원 감사 결과 이행조차도 한 달을 넘긴 곳도, 행정 절차와 일정을 오락가락 바꾼 곳도 모두 방통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파업 중단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서 공영방송을 갇아먹고 있는 적폐 이사들을 마저 쫓아내는 것”이라며 “KBS 새노조는 고대영 해임 때까지 흔들림 없는 총파업 대오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261호는 2월 7일(수)에 발행됩니다.

신년사



박종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전국의 방송기술인 및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저물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戊’는 무성하고 번성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戌’이 의미하는 개띠는 인간과 친밀하고 활동적인 동물의 대표로서, 2018년 황금 개띠 해에는 사회가 밝고 활기차게 번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만큼이나 올 한 해 방송기술인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하길 기원하며, 지혜롭게 목표하신 바를 꼭 이루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18년은 미디어 생태계가 더욱 급변하는 시점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산업 간 실질적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에 더욱 적극적인 변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마존, 구글, SK텔레콤, 네이버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AI 스피커를 필두로 미래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해 있으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강자 Netflix는 〈옥자〉 등의 한국 소비자 소구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내에서의 입지를 점차 강화하는 등 미디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 단행된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가 국내 통신망 업체와 네이버·카카오·poq 등의 동영상 업체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단하기 어려운 기술 변화와 이종 산업 간 경쟁 확장은 아마도 방송 미디어 산업에 상당한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라디오→아날로그 TV→디지털 TV로 변화되는 동안 방송·미디어 산업 역시 매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분명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IoT 등 신규 융합형 기술들을 새롭게 받아들여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긍정적인 성장을 가져오리라 기대합니다. 오히려 기술이 주도하는 이런 변

화의 시기가 우리 방송기술인들에게는 새로운 업무 영역 개척으로 신규 미디어 환경을 주도해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곧 UHD로 제작·송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세계 최초로 UHD 송출이 진행되는 만큼 한국 방송 기술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국내 방송 기술에 대한 질의와 기술 교류에 대한 문의가 있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UHD 산업을 정상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는 유료방송이든 경계를 떠나 관련 정부 부처나 가전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며, 그 수혜를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UHD 전환특별법을 제정해 UHD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류를 개척해온 지상파가 UHD 시대에서도 한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수신료 현실화를 비롯해 가전사의 일부 이익 분담, 광고 규제 완화, 방송발전기금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신 시스템 설치 제제와 등 직접 수신료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로 차별 없는 무료 보편적 미디어 사보 구현 노력도 요구됩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올 한 해에도 UHD 등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엔지니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UHD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KOBIA 콘퍼런스, 미래 방송 환경을 다각도로 고찰하는 월드미디어포럼, 예비 방송기술인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NABE·EBC와 같은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연합회원사의 단합과 소통을 위한 여러 행사도 진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간 방송과기술을 더 내실화하고 방송기술저널을 통해 다양한 방송 기술 정책을 제시해 연합회원들의 역량과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방송기술교육원을 통해 방송 제작 기술과 송신 시스템, 미래 선진화 미디어 기술 등의 교육 과정을 실시할 것이며 더 많은 연합회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과 해외 교육을 늘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작년처럼 저와 연합회 집행부, 사무처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견마지로의 수고를 마다치 않고 열심히 나아가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연합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UHD 방송 ‘5대 광역시·강원권’ 개시

UHD 방송 전환 2단계 완료…2020~21년까지 전국 시군으로 확대



수도권뿐 아니라 5대 광역시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권 일부 지역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 사이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했다. 다만, 방송 구역에 포함되더라도 고층

건물, 산악 지대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방송 수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수신 가능 지역은 해당 지역 방송국에 문의해야 한다.

이번 지상파 UHD 방송 개시는 지난 5월 31일 개시한 수도권 지역에 이어 UHD 전환 2단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향후 2020년~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 의결

방통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KBS, MBC,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6일 제4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 말에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유효 기간 3년을 부여받았다.

한편, KBS, MBC, SBS, 대전MBC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다. 심사위원

회는 이들 방송사는 방송 공정성 제고, 제작 종사자의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방통위는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추가 자료 접수를 통해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했으며, 4개 방송사 모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해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 하고 역시 3년의 재허가 유효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 공정성과 종사자에 대한 부당 징계 논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민이 지상파 UHD 방송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시청 방법을 가이드라인, 카드뉴스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가능 지역에서 UHD 방송을 보려면 △UHD 방송 표준인 ATSC 3.0이 적용된 UHD TV 여부 확인 △UHF 안테나(470~806MHz) 설치 △TV 메뉴 중 자동 채널 설정을 통해 UHD 채널을 수신하면 된다. 만약 2016년 이전에 구입한 UHD TV를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에 한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입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구는 ‘티브이바(TIVIBA)’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된 TV를 통해 양방향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티비바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UHD 양방향 서비스로 50여개의 실시간 채널, 드라마, 다큐,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주문형 비디오(VOD) 이용이 가능하며, UHD VOD도 서비스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국민이 고품질의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수신 환경 개선 등에 지속해서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는 지난 12월 21일 오전 11시 강릉 패방산 송신소에서 지상파 UHD 방송 개시 기념식을 개

최했다. KBS 임직원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파 UHD 방송 전파가 발사됐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상파 UHD 방송이 깨끗하게 수신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KBS는 UHD 전국권 송출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주요 거점 지역 8개 송신소에 8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신기 설치를 추진해왔다. KBS 관계자는 “송신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 가구의 80% 이상이 UHD 가시청권역에 포함됐다”며 “지상파방송 시청을 넘어 인터넷이 융합된 다양한 첨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화섭 KBS UHD추진단 단장은 “모바일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UHD 방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동형 HD 서비스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며 “수년 내 스마트폰, 자동차에서 다 채널 양방향 UHD 방송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지상파 방송사, 과기정통부, 방통위, 가전사 합동으로 ‘지상파 UHD 모바일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바일 서비스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UHD 수신이 가능하도록 사군 단위까지 송신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희 sh45@kobeta.com

방안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 심사했으며,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을 부가했다.

특히, 외주 제작 시장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통위는 KBS와 EBS에 자체 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가해 자체 제작과 외주 제작 프로그램 간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했다. 또, 지난 19일 5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을 골자로 ‘외주제작 거래 기준’을 방송사가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KBS와 MBC에는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제작현장 종사자와 경영진 갈등 해소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방송 제작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재난 방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지진 등 재난 재해의 빈발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방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송사의 의무를 강화했으며, MBC와 SBS에 고화질 DMB 방송을 내년 3월 내에 시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DMB 방송사 전체가 고화질 방송을 시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부가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허가 신청서 작성 사항 표준화, 평가지표 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 계획’을 보완하고 재허가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속희 sh45@kobeta.com

보편요금제 갑론을박…올해 안에 도입될까?

정부 “소비자 선택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이동통신 업계 “보편요금제 도입은 과도한 시장 개입”

알뜰폰 업계 “보편요금제 도입되면 알뜰폰 생존 못해”

시민사회단체 “월 2만 원 데이터 2GB는 제공해야”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이동통신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격 담합,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동통신 및 알뜰폰 업계에서는 ‘시장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내놓은 보편요금제는 기존 3만 원대에서 제공하는 월 200분 무료·데이터 1GB 요금제를 약 1만 원 인하한 것으로, 월 2만 원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가격은 1만 원 이상 저렴하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3배가량 많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텔레콤은 내년 하반기부터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하고, KT와 LG유플러스 등

도 결국 보편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사(MNO)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경쟁했던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업체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진행된 실적 관련 코퍼런스콜에서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KT 역시 “보편요금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을 통해 요금 경쟁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은 직접적 타격을 입어 아마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이 보편요금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설비 경쟁 위주인 통신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벽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이 도입된 것”이라며 알뜰폰과 보편요금제의 목적이 각각 다르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알뜰폰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의 말말말

정우성 “나도 수신료 내는 시청자” “KBS 정상화 바란다”

홍준표 “KBS는 파업을 그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큰 기부가 될 것”



©화면 캡처

KBS 파업에 대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영화배우 정우성 씨의 입장차가 눈길을 끌고 있다.

12월 20일 오후 4시 KBS <뉴스집중>에 출연한 정우성 씨는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있느냐’



©화면 캡처

는 앵커의 질문에 “KBS 정상화”라고 답했다. 이어 “KBS가 1등 국민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빨리 되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씨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 씨

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에 2분 2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 “파업 109일째, 월급 없는 3개월 여러분 참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힘과 의식을 모아 월급을 포기하고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은 정말 멋진고 응원받아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1월 4일 영등포 CGV에서 열린 KBS 새노조 <강철비> 단체 관람 문화 행사 자리에서는 “저도 영화배우이기 전에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라며 KBS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KBS 뉴스 도중 ‘KBS 정상화를 바란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는 질문에 “촬영 전 MBC 파업은 많이 아는데 KBS 파업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렸다”며 “KBS 정상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광화문 혁명을 지나왔는데 혁명의 완성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제부터

민주주의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최근 KBS 파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우성 씨를 비교하며 열광했다. ‘정우성과 홍준표가 따로 외친 KBS 정상화’, ‘파업 중단이 국민에 대한 기부라는 때와 장소에 안 맞는 말을 한 수준 낮은 야당 대표와 뉴스에 나와 공영방송으로서 위상 찾기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수준 높은 시민의 모습’, ‘인성까지 잘생겼어요’, ‘KBS는 국민의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12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나눔은 행복입니다’에서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 뒤 “KBS가 파업을 그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큰 기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신년사로 본 공영방송 화두는?

KBS와 MBC가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공영방송’, ‘신뢰 회복’, ‘경영 위기’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콘텐츠와 플랫폼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는 의견이 달라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다.

고대영 KBS 사장, 자진 사퇴 요구 거부

강규형 이사 해임으로 사장 교체 위기에 처한 고대영 KBS 사장은 ‘경영 위기’와 ‘플랫폼 경쟁력’을 강조했다. 고 사장은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지상과의 광고 매출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KBS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작 프로세스 개선, 조직 구조 개편, 경영 효율화 등의 혁신을 시도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 사장은 “올해 경영 목표를 ‘변화를 통한 국민 감동’으로 정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등 대형 스포

츠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고 사장은 “아무리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한다고 해도 플랫폼이나 유통 채널의 상이함으로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면 무용한 일”이라며 “KBS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마이케이(myK), 콩(Kong), 폭(pooq), 코코와(KOKOWA) 그리고 지상과 UHD 양방향 서비스인 티비바(TIVIVA) 등에 지속적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방송센터를 구축해 최첨단 방송 시설의 집약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 사장은 “현재 KBS 사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노후화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테이프와 파일이 혼재하는 기존의 제작 프로세스와는 달리 100% 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제작 프로세스와 I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제작 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 사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고 사장은 “저는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다만 법과 원칙에 의거하지 않은 채저의 거취가 타의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KBS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호 MBC 사장 “최우선 과제는 시청자 신뢰 회복”

최승호 사장의 취임으로 변혁의 물결을 이끌고 있는 MBC는 ‘신뢰 회복’과 ‘과감한 콘텐츠 투자’, ‘상생협력 체제 구축’ 등을 강조했다.

최 사장은 MBC의 경영 위기를 언급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해결 방법은 한 가지, 시청자의 신뢰를 다시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자의 신뢰 회복 없이는 MBC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의 오보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2월 26일 새롭게 시작된 <뉴스데스크>는 오보 논란에 이어 인터뷰 조작 논란에

휩싸여 있다. 최 사장은 “만약 우리가 보도한 것에 오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실을 밝히고 필요하면 사과해야 한다”며 “오류가 있는데도 적당히 넘어가려 하면 그때부터 시민들은 우리를 다시 불신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MBC는 플랫폼 경쟁력보다는 콘텐츠 경쟁력에 집중했다. 최 사장은 “지금 우리가 재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서서히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며 “구 경영진이 과도하게 높은 임원과 보직자들에 대한 처우 등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각종 비용은 삭감하고, 경쟁력을 재생산해내는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MBC의 콘텐츠를 만드는 다양한 창작자들과 상생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사장은 MBC 구성원들에게 ‘실패할 자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MBC의 미래는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MBC 구성원들이 얼마나 큰 꿈을 꾸느냐에 달려 있다”며 “여러분이 가진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첫 임명동의제 시행한 SBS 키워드는 ‘경영 위기 극복’과 ‘보도 공정성’ 확립

국내 방송사 최초로 임명동의제 투표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은 박정훈 SBS 사장은 신년사 대신 경영 설명회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져 눈길을 끌었다.

박 사장은 이 자리에서 2018년 흑자 경영을 위한

조건으로 △중국 콘텐츠 전송권 수출 재개 △에는 부분 중국 공동 제작 재개 및 미국 등 타 지역 확장 △드라마 킬러 콘텐츠 제작 △일요일 저녁 예능 시간대 석권 △교양, 예능 2049 프로그램 신설 등 10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박 사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적자 등 경영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며 기존 사업 확대 및 다각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SBS는 앞서 연말 인사에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스브스뉴스>, <마부작침>, <비디오매그> 등을 이끌 어온 심석태 기자를 보도본부장에 임명했다.

박 사장은 “SBS 보도의 신뢰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높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내부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BS 관계자는 “임명동의제를 거친 사장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대 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경영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흑자 경영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 온라인 저널리즘 강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FM 라디오 사라지나?

노르웨이 세계 최초 FM 라디오 디지털 전환



CBS는 지난 5월 코엑스에서 열린 KOBAS 2017에 참석해 'the Next CBS'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선보였다. CBS는 이 자리에서 △레인보우 서비스 △하이브리드 라디오 △OTT 서비스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보였다.

노르웨이가 세계 최초 FM 라디오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지난 12월 13일(현지 시각) AFP-DPA 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공영·상업방송 그룹인 디지털 라디오(DRN)은 이날 오전 11시 11분 노르웨이 최북단이자 북극에 있는 스발바르 군도에서 FM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로 바꿈으로써 노르웨이 전역의 FM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 방송(DAB)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노르웨이는 FM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디지털 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은 유럽에서 개발된 디지털 라디오 표준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송은 수동으로 주파수를 바꿔야 하지만 DAB는 자동 변경이 가능하다. 또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아 가용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전송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존 아날로그보다 2배 이상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이미 22개에 달하는 DAB 채널을 제공하고 있지만 FM 라디오 방송 채널은 5개뿐이다.

노르웨이공영방송(NRK)은 지난 1995년 클래식 전문으로 하는 라디오 채널인 NRK Alltid Klassisk을 디지털로 전환해 전송하기 시작했다. 당시 노르웨이 정부는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공영방송인 NRK의 디지털 도달률을 9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며 “공영방송의 도달률 확대는 다른 민영방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르웨이 당국은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 전환한 것은 FM보다 8배 저렴한 비용으로 더 좋은 음질과 더 많은 채널,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르 예르룬 에릭센 NRK 대표는 마지막 디지털 전환 작업에 앞서 “라디오를 미래로 이끈다”며 “라디오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고, 청취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채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작업이기에 진행되는 동안 기술적 사고도 일어났고, 충분하지 않은 전송

범위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르웨이 일간 다그블라더트가 주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 디지털 전환에 만족하고 있다. 또 다른 현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라디오를 청취하는 노르웨이 국민 비율은 10%까지 떨어졌고, NRK는 청취자 21%를 잃었다. 이에 대해 올레 요르겐 토브마르크 DRN 대표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청취자들에게 디지털 라디오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지역별로 디지털 전환 직후에는 청취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과 덴마크, 스위스 등도 몇 년 안에 라디오 디지털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TV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처럼 라디오도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라디오로 바뀌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음질도 CD 수준의 고음질로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날씨나 교통 등 양방향 데이터 방송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2년까지만 해도 DAB 방식을 중심으로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추진됐었다. 당시 정보통신부의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추진 계획’에 따르면 1997년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에서 DAB의 도입을 검토했고, 1999년에는 정통부 내 DAB 도입 연구반도 구성됐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됐고,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디지털 라디오는 다른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라디오망은 지진이나 폭풍, 여타 물리적 충격에 대한 네트워크 안정성이 가장 높다”며 라디오도 디지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YTN 또 다른 균열…“합의 파기한 최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최남수 사장, 노사 합의 어기고 ‘송태엽 부국장’ 보도국장 내정



최남수 사장 선임을 놓고 노사 합의를 이뤘던 일단락되는 듯했던 YTN에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중재로 진행한 노사 협상에서 노총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내정할 것을 합의했으나 최 사장이 이를 어기고 1월 5일 송태엽 부국장을 내정한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즉각 반발해 8일부터 최남수 사장의 출근 저지에 돌입했으며 퇴진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YTN노조는 “보도국장 내정 문제는 단순한 인물 문제가 아니다. 사장이 얼마나 보도국 독립과 보도 혁신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첫 시험대이자 가늠자였던 것”이라며 “합의를 파기하고 개혁을 거부한 최남수 씨는 그 첫 관문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YTN 노조는 최 사장이 송태엽 부국장을 내정한 5일 합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보도국장 내정자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중재자인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그것은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라며 별도 면담으로 노총면 기자를 보도국장 내정자로 지명하는 데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최 사장은 “그런 뜻을 담아서 공개 요청 해주시면 회사가 답을 드리겠다. 노

조는 보도국장 내정자에 대해 동일한 입장이지 않나”라고 응답했다.

최남수 사장은 내정이 결정된 지난해 11월 5일부터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문제는 최남수 사장이 1995년 입사 이래 IMF 직후인 2001년과 이명박 정권 초임인 2008년 총 두 차례 YTN을 떠난 것이었다. 2008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방송 상임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선임에 반대하는 노조 투쟁으로 6명의 기자가 해직된 해다.

최 사장의 내정을 두고 YTN 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 전 대표를 선임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두 번이나 YTN을 떠난 인사를 세 번째 입사 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YTN의 침몰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후 YTN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하는 등 극단으로 치닫던 사태는 언론노조의 중재로 화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초 최 사장의 선임 의결을 위해 22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언론노조의 중재로 노사 협상을 타결해 28일로 연기했다. YTN 노사는 협상을 통해 △적폐청산을 위한 독립 기구 설립 △지난 9년간 3년 이상 보직 간부의 보직 임명자격 잠정 보류 △혁신 TF를 보도본부장 산하로 이관·성공 실현 보장 △보도국 독립 운영 보장 △12월 28일 주총에서 최남수 등기이사 선임 건 정상 처리 협조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취임 이후 단 9일 만에 어렵게 이룬 합의를 깨버린 최 사장을 두고 YTN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남수 사장이 ‘12.27합의’를 파기했다. 언론노조 중재 끝에 서명한 합의는 최남수 씨가 사장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며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전속희 sh45@kobeta.com

기술용어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빛을 활용해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를 감지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있어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센서가 초당 수백만 개의 레이저빔을 발사하고 빛이 센서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주변과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자율주행차의 세 가지 핵심 원리는 인지, 판단, 제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인지’인데, 주변 상황과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적기에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오토파

일럿 모드로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 S가 하얀 트레일러를 하늘로 착각해 발생한 사고를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사실 LiDAR 외에도 비슷한 원리의 센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LiDAR가 주목받는 이유는 월등한 3D 지도 복원 기술 때문이다. 주로 905nm의 파장이 짧은 레이저 광선을 사용해 해상도와 정밀도가 뛰어나며, 사물을 평면이 아닌 입체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러나 높은 가격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전속희 sh45@kobeta.com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 2018년 방송계 전망과 과제



최승호 신임 사장이 12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유튜브 화면 캡처

변혁을 꿈꾸었지만 2016년에 이어 2017년도 혼돈(混沌)과 미완(未完)으로 마무리됐다. ‘촛불’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시작으로 적폐 청산의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더블어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을 둘러싼 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난타전이 이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4기 방통통신위원회가 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강력한 방통위’는 결국 MBC의 정상화를 이끌었고,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요 정책들이 본격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 방송계 이슈를 간략히 짚어보고, 각각의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 완료

KBS와 MBC는 지난해 9월 4일 ‘공정 방송·방송 독립 쟁취’와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며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 KBS와 MBC 노동조합이 함께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총파업 이후 5년만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이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연합회는 9월 5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또 다시 험난한 투쟁 길에 나섰다”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이들의 힘찬 첫걸음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

해결의 실마리는 MBC가 먼저 찾았다.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을 시작하자 야권 추천 이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고, 후임으로 김영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상임이사장이 선임되면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과 김장겸 사장 해임안 가결에 한발 더 다가섰다. 이후 고 이사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고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MBC 파업 71일째인 11월 13일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다음 날 MBC 노조는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MBC는 사장 후보자 3인의 정책설명회, 최종 면접 공개라는 과정을 거쳐 최승호 뉴스타파 PD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반면 KBS의 파업은 129일째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KBS의 파업도 1월 중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감사원은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규모가 크다며 이들에 대한 해임과 징계를 건 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강규형 이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뒤 강 이사를 해임했다. 이어 1월 4일에는 강 전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를 추천했다. 또 여권 추천 이사 4명은 1월 8일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여야 구조가 뒤바뀐 현 상황에서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강 전 이사가 1월 3일 문재인 대통

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KBS 정상화 속도가 조금 더디게 갈 수도 있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성공적 안착?...‘지원책 없이는 어려워’

지난해 5월 3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안착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12월 말에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원주, 강릉, 평창 등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일부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이 확대됐다. 이번 확대는 UHD 전환 2단계로 향후 2020년~21년에는 전국 시군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거리가 적고, 실제 이용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형민 MBC UHD전환전략부장은 지난 8월 22일 열린 UHD 정책 토론회에서 “UHD 방송 추진이 난관을 겪는 이유는 온 국민을 위한 서비스임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투자와 노력만으로 가능하리라는 편견 때문”이라며 “지상파 방송사가 지속적 투자로 콘텐츠를 만들고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만큼 가전사도 시청자가 불편 없이 수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전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지상파 경영 악화를 개선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진취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이 송출되는 만큼 국내 방송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국가적 지원은 미미하다”며 “UHD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UHD 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중간 광고 올해는 풀리나?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제4기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은 지상파의 독점적 지배가 사라진 뒤 계속 논의됐지만 신문 및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반대로 5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이번에도 4기 방통위가 “방송 광고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등 사업자 간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불합리한 방송 광고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바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이 신문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상파 중간 광고를 도입하면 신문 광고가 연 200억 원 감소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방송 광고 매출은 3조2,20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511억 원 감소했다. 2011년 이후 5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상파 광고 매출 비중은 2012년 60.9%에서 2016년 50.4%로 10.5%p 줄어들었다. KBS와 MBC의 과업으로 2017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 매출은 같은 기간 35.4%에서 41.9%로 6.5% 증가했다. 지상파와 종편을 비롯한 PP의 광고 매출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매체별 매출액 격차의 급감은 매체균형발전론에 근거해 정책적으로 방송 광고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비대칭 규제 방식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M&A 물고 트나?



지난해 비교적 조용한 한 해를 보냈던 이동통신 사업자의 케이블 인수전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이라는 변수가 예정돼 있어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산 규제는 케이블, 인터넷 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사업자의 가업자 합산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올해 6월이면 효력을 잃는다.

현재 KT의 IPTV와 특수 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합산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 6월 기준 30.34%로 상한선까지 2.85%만 남겨둔 상태다. 만약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KT도 케이블 인수전에 나설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

난해 8월부터 연구반을 통해 합산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어 합산 규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종편 특혜 환수’ 논의 시작

매년 실패했던 종편 특혜 환수가 올해는 이뤄질 수 있을지 관련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종편의 과도한 특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특혜 없이 종편과 지상파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청문회 자리에서 “자유 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 전송하면 안 된다”며 종편의 의무 전송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종편이 2016년까지 의무 전송 대가로 받은 돈이 1,890억 원”이라며 “지나친 이중 특혜”라고 지적했다. 현재 종편은 의무 전송을 하면서 별도의 수신료를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4기 방통위는 정책 과제를 통해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종편이 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외주 제작 편성 의무, 의무 송출 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기준 등 지상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편의 특혜 환수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이 위원장을 필두로 한 4기 방통위가 과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종편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 재분장?

정부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재조정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당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통위를 만들었다. 이때 방통위에서는 방송과 통신 업무 전체를 총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키면서 방통위의 업무는 나뉘었다. 통신 진흥 업무를 비롯해 유료방송 중 뉴미디어 정책 등은 방통위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주파수 정책 등은 방통위에서 다루게 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뉘짐으로써 정책적 불일치가 발생해 관련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 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 역시 정책 과제 발표 자리에서 “2008년 방통위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며 방송과 통신 업무를 방통위에서 총괄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드러내 업무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다수 동의하고 있다. **정리 백선하 baek@kobeta.com**



개미 해 방송계 이슈



2006년 병술년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 서비스 시작(2006.03.)



MBC 'mini'를 시작으로 KBS '콩', SBS '고릴라', CBS '레인보우' 등 지상파 방송사는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는 이미 1996년 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 라디오를 위한 프로그램이 등장한 것은 2006년 3월부터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히 라디오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메신저와 라디오를 결합한 형태로, 실시간 채팅·사연 게시판 등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라디오 청취율과 방송 참여도 제고에 많은 공헌을 했다. 더불어 쌍방향 라디오방송의 효시가 됐으며, '보이는 라디오' 등 라디오방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시범 방송 (2006.06.05.)



KBS, MBC, SBS, EBS 지상파4사는 월드컵 기간에 디지털 방송의 MMS 시범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2006년 5월 29일 방송위원회에 요청했다. 다음 날인 30일 방송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허용하기로 의결했으며, MBC, SBS, EBS는 6월 5일부터 KBS는 6월 8일부터 시험 방송을 시작했다.

KBS, MBC, SBS는 월드컵 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EBS는 수능 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KBS, MBC는 생중계 시에 멀티앵글 방송을 했고, 녹화 중계 및 경기 재방송 시에는 월드컵 하이라이트 등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및 다른 경기를 재방송으로 편성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발족(2006.07.27.)



방송과 통신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다루는 의제가 방송·통신·가전 연계 등으로 넓고 산업의 미래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부 기관도(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5개에 이르면서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청와대 직속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융합추진위는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과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전문위

원회를 뒀으며, 정책·사업 분과위원회와 기구·법제 분과위원회로 나눠 의제별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각 위원회에는 국무조정실과 정부 5개 부처 대표, 학계, 법조계 대표가 대폭 참여했다. 융합추진위는 약 6개월간 논의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경기·인천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 (2006.10.27.)



경인방송(iTV)은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됨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부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2006년 초 경기·인천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 총 5개 사업자가 신청했으나 모든 사업자가 1000점 만점 중 650점이라는 기준 점수를 얻지 못했다. 결국 두 번째 사업자 모집 공고를 거쳐 2006년 4월 28일 699.2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경인티브이'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iTV가 정파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경기·인천 지역의 시청권을 회복하게 됐다. 이후 경인티브이는 2007년 12월 28일 'OBS경인TV'로 개국한다.



1994년 갑술년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수신료 위탁 징수 KBS 1TV 상업 광고 폐지(1994.10.01.)

청구내역	
기본요금	1,490
전력요금	31,220
부가가치세	32,710
연체료	3,271
가산금	1,012
가산금	1,210
가산금	20
가산금	-3
가산금	38,220
가산금	2,620

KBS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청구해 징수했던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전기요금과 합산 징수하기 시작했다. 낮은 징수율을 해결하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50%대였던 징수율이 90%대로 치솟았다. 더불어 변경된 징수 방식에 따라 공영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KBS 1TV의 상업 광고를 폐지했다.

CBS 성우극회 마지막 기수 제18기(1994.)



CBS 성우극회는 1955년 제1기를 시작으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극회다.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KBS 성우극회에 통합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으나 1981년부터 다시 성우를 모집했으며 지미

애(제14기), 민응식(제16기) 등 재능 넘치는 성우들의 요람이 됐다. 그러나 1994년 제18기를 마지막으로 성우를 모집하지 않는다.



1982년 임술년

MBC 여의도 사옥 준공(1982.03.17.)



MBC 여의도 시대가 1982년 3월 17일 시작했다. 컬러 TV 시대를 대비한 TV 방송 스튜디오로 1979년 9월 11일 건설을 시작해 준공과 함께 TV 제작부서가 이전했다. 이후 지속적 증축 공사로 1986년 4월 정동 사옥에 남아 있던 라디오, 보도국 등을 이전해 완전 이전을 완료했으며, 2014년 일산드림센터로 이전하기까지 32년간 MBC의 중심으로 자리했다.

EBS <딩동댕 유치원> 방영 시작(1982.03.30.)



<텔레비전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1982년 3월 30일 방영을 시작해 몇 차례의 변경 후 1989년 지금의 <딩동댕 유치원>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됐다. 방영 초기 당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취원율이 20%도 미치지 못해 유치원 교육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탄생했다. 2017년 2월 8일 8000회를 돌파하며 현재 EBS의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올림픽 방송실시본부(SORTO) 발족 (1982.11.09.)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199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지정됨에 따라 한국은 올림픽 준비에 돌입한다. 이는 방송계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KBS를 올림픽 주관 방송사로 결정한다. KBS는 MBC의 협조를 얻어 서울올림픽 방송을 주관하는 기구인 SORTO를 발족했으며, SORTO가 건설한 국제방송센터는 여의도에 세워져 세계 각국 130여 개의 방송사가 입주했다.



1970년 경술년

CBS <꿈과 음악 사이에> 방송 시작

(1970.09.21.)



1970년 9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꿈과 음악 사이에>는 CBS의 역사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표 프로그램이다. 방송 초기에는 AM으로 송출됐으며 2000년대에 FM으로 옮겨져 지금의 방송 시간인 밤 10시~12시로 변경됐다. 현재 DJ인 방송인 허윤희는 2007년 1월 1일부터 11년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시작(1970.10.05.)



M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MBC 뉴스데스크>가 1970년 10월 5일 방송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오후 10시 30분에 방영됐으며, 몇 차례 변경을 거쳐 2012년 11월 5일부터 오후 8시로 지금 시간대에 자리 잡았다.

시사인이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2007년 14.7%로 KBS 1TV <뉴스9>에 이어 2위를 지키고 있던 <MBC 뉴스데스크>는 2017년 3.0%로 조사 이래 최저점을 찍었으며 3위 JTBC <철전>(5.3%), 4위 SBS <그것이 알고 싶다>(3.6%)에 이어 5위에 머물렀다.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선임 이후 박성호, 손정은 앵커로 진행자를 변경한 <MBC 뉴스데스크>는 2017년 12월 26일 특집 방송에서 '반성 리포트'로 시작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1946년 병술년

미군정하 방송 기구 개편(1946.03.29.)



1945년 9월 15일 미군정이 공식적으로 방송국을 접수한 후, 방송 기구의 미국식 개편이 시작됐다. 1946년 3월 29일 군정청 부서를 개편하면서 군정 법령 64호에 의해 공보국이 공보부로 개편됐으며, 조선방송협회 산하에 있던 각 방송국을 따로 분리해 기술 업무국은 종전대로 체신부 사하의 조선방송협회에 남겨두고 방송 제작 및 운영국은 공보부로 이관했다.

당시 방송은 신문과 달리 미군정의 직접 통제를 받아 '중립'을 표방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미군정 고문관의 사전 검열을 받았고 후에 사후 검열 체제로 바뀌었다. 검열 주요 기준에서 미국의 이익이 중요했으며, 공산당의 선전 방송은 철저히 차단됐다.

정리 전숙희 sh45@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송기술교육원 글로벌 방송제작기술 전문가 양성 과정

일본의 민영방송국을 방문하며

강동민 SBS기술기획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초겨울, 운이 좋게도 방송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방송제작 기술 전문가 양성 과정’에 선발돼 일본의 민영 방송사 및 방송장비 제작사를 방문하고 교육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공영 방송국인 NHK 외에 민영 방송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4K UHD 방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다 건너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짧은 글을 통해 민영 방송국 중 하나인 후지TV를 소개 해보려 한다.

후지TV는 일본의 5대 민영 방송사(일본방송, 아사히방송, TBS, TV도쿄, 후지TV) 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인 오다이바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1959년에 개국한 방송사로 1995년 산케이 그룹 본사와 합병돼 신문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1966년에 각 지역 방송국 네트워크를 뜻하는 ‘FNN’을 발족해 지역 계열 방송국 28국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공유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SBS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지상파방송 외에도 BS위성방송, CS통신위성 방송을 같이 운영하는 점은 우리에게 생소한 점이다.

본사 건물은 일본의 전설적인 건축가 ‘단게 겐조’가 설계 당시부터 랜드마크를 계획해 준비한 것으로 유명하며, 그 덕분에 일본 방송국의 본사 사옥 중 가장 크고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건물은 오피스 타워와 미디어 타워 2개의 동으로 구성돼 중간에 두 동을 이어주는 복도를 길게 연결해 놓은 방식인데, 재미있는 점은 건물의 가로세로 비율을 HD TV의 가로세로 비율과 같은 16:9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건물의 1층에는 지금까지 방영한 애니메이션을 콘셉트로 한 기념품 숍과 식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해안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체 모양의 전망대가 있어, 오다이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 주택지나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국의 방송사와 달리 관광지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방송국을 보니 신기했고, 방송국이 방송 송출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기려던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방송센터 내부에는 총 9개의 스튜디오-부조정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을 위해 방문한 주조정실은 위성방송도 같이 운영하는 일본 방송사의 특성상 2개로 분할돼 운영하고 있다. 후지 위성방송(BS후지)의 경우 후지그룹의 계열사인 까담에 편성 또한 다르게 진행되지만, 주조정실 운용은 후지TV에서 위탁받아 함께 운영한다고 한다.

교육 내용 중, 국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프로세스가 인상적이라 간략하게 소개해보려 한다. 대처 프로세스는 지진 진도 ‘5’를 기준으로 ‘긴급지진속보’와 ‘지진속보’로 나뉘어 진행하는데, ‘긴급지진속보’ 시 기상청에서 자동으로 수신 받은 XML 데이터 파일을 기초로 자동 변환된 지진속보 CG가 주조정실 최종단에서 자동으로 생성돼 송출된다. 이를 확인한 담당자들이 보도국과 협의해 긴급 뉴스를 준비한다. 진도가 5 이하일 시에는 ‘지진속보’ 프로세스로, 자동 CG가 생성되지 않으며 보도국의 판단에 따라 긴급 뉴스를 준비한다.

지진 대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FOC(후지 오퍼레이션 센터)였다. FOC는 방송사의 회선 운용/신호 품질 관리/기상 센터/장비 보수 업무를 모두 모아놓은 컨트롤타워 격인 공간이다. 네트워크 지방 방송국이 많고 수신 확인이 필요한 채널이 많다보니 한쪽 벽이 빼곡하게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다.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위성 송수신 품질 관리를 위해 KU 밴드 전파를 모니터링하는 공간이 따로 구성 돼 있고, 마찬가지로 날씨 상황에 영향을 받는 위성 방송의 특성상 기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상 모니터링 공간이 별도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쪽 벽은 유리창을 통창으로 제작해 견학 시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점도 인상적이었다.

그 밖에도 한쪽 공간에는 재난 대비용 안전모 및 비상 가방, 대용 유선 번호 등 재난을 오랫동안 꾸준히 대비하고 있는 모습에 눈길이 갔다. 이제 막 재난 방송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한국 방송사는 일본에 비교한다



면 앞으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이렇게 매사에 준비가 철저하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인기와 더불어 미래가 창창할 것 같은 일본의 방송사도 요즘 들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구인난이다.

최근 일본은 유례없는 높은 취업률로 인해 구직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호황 덕분에 어떤 기업에 가도 높은 급여를 제공해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방송사가 좋은 직장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로 방송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불필요한 실수를 막기 위해 기기 자동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자 매출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한국과 비교해봤을 때 참 웃기면서 슬픈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일례로 해외지국이나 간단한 중계방송 진행 시에 중계차를 운영한다면 관련 스태프까지 여러 명이 필요하지만, 무선통신망 중계(LTE 중계, LIVEu 등) 시에는 기자가 혼자 가방만 메고 진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물론 관련 장비 구매비가 절약되는 것은 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신율이 50%에 달해 방송사 수입의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광고 수익이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일본인의 성향상 밖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SNS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도 적은 편이다. 낮은 직접 수신율로 인해 케이블 방송과의 경쟁에 고군분투하며 인터넷 콘텐츠 제작에 열을 쏟는 한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그나마 일본은 최근 2015년부터 민방 5개사의 지상파 콘텐츠를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TVer’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방영 일주일이나 지나야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한 한국의 서비스와는 달리, 일본은 방영 후 일주일까지만 무료로 VOD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었다. 이러한 관점 또한 국민 성향이 반영돼 결정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간략하게 후지TV를 방문해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작성해왔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왜 4K UHD 방송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아직까지 민방 5개사는 4K UHD에 대한 계획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후지TV 외에 아사히TV, 니혼테레비 등 3개 민방사를 방문해 공통 질의를 했을 때 ‘내년 12월부터 지상파방송을 통해 4K 방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만이 우리가 들었던 유일한 답변이었다. 그럼에도 방송국 내의 준비 사항이나, 태도 등을 종합 해 봤을 때 느껴지는 점은 내년 12월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한국의 지상파방송이 일본 방송 장비 제작사의 신규 UHD 장비를 구입해 대부분의 시스템을 설계 했음에도, 정작 일본 본토에서는 이슈조차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NHK의 입장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아쉬운 일정을 뒤로 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돼 폐막하면 곧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예정돼 있다. 과연 본격적으로 차세대 방송을 준비 할, 3년 뒤 일본 지상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된다.

일본 SONY 참관기와 HDR

이경동 KBS TV제작부



방송기술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과정을 모집하는 메일을 받고 한동안은 망설여졌다. 그럼에도 지원서를 내게 된 동기는 UHD 시대가 필자가 근무하는 부산권역에 곧 실시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무엇인가는 해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과 입사 20년이 넘어서도 도전하는 시니어 엔지니어의 모습을 후배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교육 첫째 날은 도쿄에서 떨어진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에 있는 Sony Atsugi Center에서 교육이 이뤄졌다. IP Live System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들었다. Sony는 이미 IBC 2017의 IP SHOWCASE에서 50개 이상의 VENDOR와 모여서 호환성 테스트도 시연했다고 한다. 브라질의 TV GLOBO에서 최초의 4K IP 중계차를 도입했으며, 영국의 BBC LONDON의 4K IP STUDIO도 구성했다고 한다. 4K가 도입되면서 12G 이상의 Data Rate로 인해 10GbE fiber Optic cable 수용을 못함에 따라 low latency를 가진 high quality video compressed가 필요하게 돼 Sony의 NMI 방식으로 single cable로 두 개의 4K signal을 전송할 수 있게 됐다.

Video를 IP에 실는 표준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

데, AIMS(Alliance fir IP Media Solutions)그룹과 ASPEN(Adaptive Sample Picture Encapsulation) 그룹으로, 전자는 Grass Valley, CisCo,EVS 등으로 후자는 Evertz, For-A,Ross, Sony 등으로 나뉜다.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장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방송의 처음 단계라 할 수 있는 카메라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HDC4800은 Super 35mm CMOS Sensor를 가진 Ultra High Frame Rate 카메라인데 4K 출력뿐 아니라, 200fps(4배속), 400fps(8배속)의 출력도 나와서 향후 기술할 BPU-4800, PWS4500 장비와 연결해 SharePlay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SharePlay 기능이란 서버 간 IP Network를 통해서 각각의 Clip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다음으로 HDRC4000은 4K HDR(PQ, HLG), 4KSDR, HD HDR의 출력을 내보낼 수 있다.

BPU-4800은 베이스밴드 프로세스 유닛 장비로서 잡나의 시간을 4K로 포착해 생생한 영상을 저장하며 IP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다. 4K HFR DATA 및 고화질 XAVC의 동시 레코딩 및 재생 기능을 가진다.

PWS-4500은 4K/HD 멀티 AV서버/스토리지로서 XAVC인트라 코덱의 4K/HDR을 다루며, 8배속의 HD와 4K의 2배속 슬로모션을 지원하며 동시에 4K와 HD를 기록하며 스토리지는 110시간 HD와 하루분의 4K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Media Gateway를 이용해 Avid와 Evs와 결합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WS-100 PR1은 제작 제어장치로서 playlist와 clip 관리를 하며 clip을 EVS로 보내준다. PWS-110 MG1 은 Media Gateway로 Media transcoding과 clip을 검색해 주는 기능이 있다. 제작 스위처(VMU)는 우리가 쓰고 있는 MVS-8000 시리즈부터 XVS6000/7000/8000/9000까지 발전했다. XVS-8000은 8ME에 160개의 Input과 48개의 Output의 스펙에 4K와 IP를 할 수 있는 기종이다. 인터페이스는 현재와 거의 비슷하므로 기술감독이 별도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각 패널이 CPU로 분리돼 스텐디오 두 곳에서 운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패드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쓸 이유가 없는 듯 했다.

세계 최초의 4K Shoulder Camcorder는 두 차례의 업데이트가 이뤄져 4K HDR과 4K SDR를 동시 녹화 가능하다고 한다. Venice Cinema Camera는 8개의 ND Filter System을 갖춘 6K High Resolution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후 기술할 내용은 소니측에서 설명한 HDR 이론 부분과 HLG-Live에 관한 설명 부분이다. HDR은 High Dynamic Range로서 보다 넓어진 밝은 부분 표현과 묻혀서 구분이 어려웠던 어두운 영역까지 잘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 비주열/현실과 근접한 테크닉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카메라 성능이 발전하더라도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으나, HDR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카메라에서 구현하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예전의 HD Camera의 색 범위인 Rec709은 입력 레벨의 100프로를 디스플레이의 최대 루미넌스 레벨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카메라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빛을 캡처할 수 있게 됐고 Rec709보다 확장된 로그 커브가 필요하게 됐다. 여기서 나온 표준이 HLG(Hybrid Log Gamma)뿐 아니라

PQ(Perceptual Quantinizer)와 소니의 S-Log3커브도 있다. 현재의 상황은 HLG가 HDR뿐 아니라 SDR의 동시 제작의 문제를 해결하는 표준으로 방송사(BBC, NHK)는 도입했다. HLG 개발의 목표 중 하나가 기존의 SDR TV시청자를 위한 호환성 유지다. HLG는 100% 이하 영역의 출력 레벨을 반으로 낮춰서 넓어진 입력 신호의 다이내믹 레인지에 대응하도록 한 감마다. 소니의 S-Log3 또한 제작 단계에서 동일한 영상을 유지하면서 요구되는 다양한 포맷(4K HDR/SDR, HD SDR, BT709)으로 서비스가 가능했으나 모니터의 정합성 및 송출단에서 포맷 컨버팅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했고 HLG 기반은 어두운 밝기하에서 HD와 S-Log3보다 어두워지는 단점이 있어 HLG-Live라는 개선된 모드를 개발하게 된다. 촬영 단계에선 HLG Live모드를 이용해 촬영한 후 제작 마스터 포맷은 4K HLG모드를 활용한다. 현업에서는 총괄마스터가 HLG로 모니터 된 부분을 보고 오퍼레이팅은 HD SDR 모니터를 보면서 제작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위의 부분을 소니 측에서 설명하고 일부 시연도 했으나 체화하기는 어려웠다. 귀국 후에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더 찾아보고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 둘째 날 Sony의 Vip센터를 방문했는데 센터 안에 들어서니 소니의 주요 제품에 대한 전시장이 눈에 확 들어와 소니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다. Visual Security Camera 전시물에선 인천공항에 이미 소니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물도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해상도가 상당히 뛰어나다.

Life Space에서 시연한 제품은 정말 신기했다. TV속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화면에서 말하는 사람의 부분을 찾아다니며 오디오가 나오는 기술, 스피커와 조명이 함께 합친 제품(이 제품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다.) 등 한번쯤은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상상 속 제품이 현실화된 것 같았다. VR 게임룸에서 게임 시연도 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닌텐도로 시작된 게임 시장이 VR로 넘어선 지금,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인데 선제적 제품 개발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영화 <쥬만지> 예고편을 시청하는 것으로 소니센터 방문을 마무리 지었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화폐

칼럼



오건식
SBS 미디어개발팀 부국장

어느 날 갑자기 원화를 폐지하고 달러로만 거래하라고 한다면 엄청 혼란스러울 것이니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는가? 주조나 부조에서 ‘TAKE’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도 가상 화폐 시스템은 변화하고 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방송기술인 여러분 모두 무조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필자의 아들이 다음과 같은 개그를 보내왔다. 지금은 방송에도 나와서 누구나 다 아는.

“아빠, 비트코인 하시던데 생일선물로 1 BTC만 주세요...”

“뭘, 1,570만 원을? 세상에 1,720만 원은 큰돈이란다. 대체 1,690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 적절한 비유라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개그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가 아니라 가상 화폐 혹은 암호 화폐라고도 하는 물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미래학자들이 예견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주로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변화에 중점을 뒀었다. 심지어 미래학자들도 가상 화폐에 대해 언급을 안 했을 정도이니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 암호 화폐의 미래는 극히 부정적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드는 예는 과거 네덜란드 툴립 파동이다. 그러나 가상 화폐 옹호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궁이 가는 면들도 있다.

핵심은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선사시대 조개껍데기를 화폐의 시초 비스무리한 것으로 본다면, 그리고 지금 다시 조

개껍데기를 화폐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레알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동네 바자락 칼국수집이나 조개찜집 사장님이 가장 부자일 것이고, 다들 바자락 칼국수집이나 조개찜집에 가서 먹지는 않고 포장해 갈 것이다. 조개를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하다가 다른 물건, 일례로 금을 화폐로 사용하게 된 것은 그 당시로써는 어마어마한 변혁이었을 것이다. 그런 결정의 이면에는 조개 이상으로 금이란 물질의 가치가 훨씬 크고 보편적이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금본위 화폐 제도가 퇴출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란 것의 본질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종이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가상 화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얼마 전 모 방송사 프로그램 중에는 세계의 대표적 의혹 16가지를 선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의혹 중 하나가 뉴욕에 있는 미연방준비위원회 지하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보관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금일까 하는 점을 방송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는 정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설왕설래 말들이 있어왔다. 그만큼 중앙은행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가상 화폐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의 출현 시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즈음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에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소위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현상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인플레이가 매우 심한 짐바브웨의 화폐인 짐바브웨 달러에는 100조 달러짜리 지폐도 있다고 한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장이라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짐바브웨에서 점심 한 끼 먹는데 300조 달러를 썼다면 잘 먹은 것일까? 아니면 바가지 쓴 것일까?

이렇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에 대한 회의가 가상 화폐의 출발점일 수 있다.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폭압적 정권에 대한 항거, 소위 ‘~의 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항거라면, 가상 화폐는 기존 중앙은행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계주로 있는 통화계에서 계주인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계는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가 되는 것이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4차 산업의 가장 큰 충격은 AI가 아니라 가상 화폐일 수도 있다. AI는 기술적 요인이므로 그 효과와 점진적일 수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가상 화폐는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는 프레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 가령 어느 날 갑자기 원화를 폐지하고 달러로만 거래하라고 한다면 엄청 혼란스러울 것이니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는가? 주조나 부조에서 ‘TAKE’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도 가상 화폐 시스템은 변화하고 있다.

아직 가상 화폐가 현재의 화폐를 대체할 수단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100% 대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번 고기 맛을 본 이상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영화 <In Time>에서 보면 미래에는 화폐의 단위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상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안정적 방송 송출만큼 가상 화폐의 진화에도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떻게 진화할 것 같다고는 안 갈쳐준다.

그나저나 아빠에게 비트코인을 달라고 하지 말고 아빠에게 선물하는 센스 있는 아들은 어디 없을까?

사설

신규 UHD 방송 서비스 성공, 인재 양성과 교육이 기본이다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이 저물고, 변성과 소통을 의미하는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다. 연초부터 2년여 만에 남북회담이 재개되는 등 좋은 분위기에서 새해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도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우선,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 정세 불안의 정점을 찍고 있는 남북, 미국, 중국 간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이라는 타이틀로 한국 방송의 선진성과 전자 산업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차별화할 호기가 되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세계 최초 지상파 UHD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방통위는 작년 말 제4기 정책 과제 발표에서 UHD 방송의 성공적 도입과 활성화를 핵심 의제로 정했다. 우리는 지난 HD 전환기에 국내 지상파를 선두로 HD 전환을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성공시키면서 삼성, LG가 최고 글로벌 가전 업체로 성장하고, 세계 속에 한류를 확산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을 기준으로, 방통위의 UHD 방송 성공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방통위의 정책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UHD를 통해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는 IP 기술과 변화된 제작 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기본이다. 그렇지만 방통위의 정책 과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나 의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과거 아날로그에서 HD로 전환하는 시기를 살펴보

면, 초기에 제작/송출/시스템 기반을 담당하는 방송기술인을 대상으로 20억에 달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이 있었으며, 이런 교육과 안정적 기술 시스템 바탕 위에서 고품질 콘텐츠가 생산되고, 제작과 뉴미디어 서비스 방식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방송사는 광고 수입 감소에 허덕이고 있으며, UHD 편성비율 준수도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인재 양성과 교육에 투입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기관조차 이에 대해 무관심한 현실에서 UHD 시스템을 운용할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HD 모바일, IP 커넥티드 융합 서비스 등에 대한 인재 양성 준비는 극히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불완전하고 미숙한 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계 최초 UHD 방송이 실망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의 미디어 제작자와 정책 관련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UHD 방송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것이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UHD가 미디어 산업에서 고품질 콘텐츠의 기준으로 인식돼 가고, 가전 산업에서는 하이엔드 제품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서,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UHD의 성공적 안착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미디어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근간에는 전문가들의 준비와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나 초창기에는 제작과 송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기술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돼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차세대 방송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방송사들의 기술 미디어 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투자 정책 보완을 통해 차세대 한류 문화 확산과 산업 발전의 기틀 마련이 요구된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박종석
편집주간 | 박재현
편집위원 | 허슬기, 김지옥, 양창주, 이용학, 유의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쇄인 | SJC성전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전화 | 02-3219-5637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 세미나 및 기술 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 방법

- 1년간 8만 원 / 6개월 5만 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Worldwide Olympic Partner
Panasonic



100 창업 100년
SINCE 1918

5.7K Cine Camera EVA1



The new cinema camera AU-EVA1



- 새로운 5.7K S35 센서 채택 및 SD카드를 통한 4K 4:2:2 10bit 촬영, 422 10bit Raw 출력
- Varicam과 동일한 Cinematic Look : 14 stop Latitude, V-Log & V-Gamut, IR Cinematography
- 가볍고 작은 무게 1.2Kg와 본체 SDI, TC In/Out & XLRs 제공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 상담실 1588-8452

방송장비 공식 대리점

(주)디엠씨정보 02-701-2853

에이브이엑스(주) 02-2265-0032

(주)캐스트원 02-2639-6100

케이엠티시스템(주) 1566-8544

(주)디투에스 070-7018-6506

조달: 인터엠 1588-7074